

‘도영아 니멤시 살아야’ KIA 김도영, 부상 복귀 시동



개막전 부상 후 퓨처스리그 출전
삼성 2군 상대 2타수 1안타
복귀 시 타선 강화·전략 확대
라이브배팅 후 LG전 복귀 예상

지난해 ‘도니살(도영아 니멤시 살아야)’ 열풍을 일으킨 KIA타이거즈의 내야수 김도영이 햄스트링 부상을 입고 1군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

김도영은 23일 함평-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5 메디힐 KBO 퓨처스리그(2군) 삼성 라이온즈 2군과의 홈 경기에서 3번 타자·3루수로 선발 출전해 2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한 뒤 강민제와 교체됐다.

김도영은 1회말 첫 타석에서 삼성 선발 김호진의 직구를 상대로 뜬공으로 아웃됐다. 3회말 두 번째 타석에선 송은범의 체인지업을 통타,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만들어 냈다.

수비에서는 타구가 대부분 김도영이 있던 3루를 피해가면서 큰 활약을 펼치지 못



KIA타이거즈 김도영(왼쪽)이 23일 함평-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5 메디힐 KBO 퓨처스리그(2군) 삼성 라이온즈 2군과의 홈 경기에서 안타를 때린 3회말 타석에 들어서 있다.

했지만, 송구 등 특별한 실책 없이 제 몫을 해냈고 3회말을 끝으로 교체됐다.

앞서 김도영은 개막전 첫 경기였던 지난달 22일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NC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왼쪽 허벅지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다.

지난 시즌 KIA를 통합 우승으로 이끈 주역이었던 김도영은 올시즌도 기대가 컸다. 그는 지난 시즌 타율 0.347(189안

타) 38홈런 40도루 143득점 109타점을 기록했고 역대 5번째 전반기 20-20 클럽, 역대 최연소·최소 경기 30-30 클럽, 역대 두 번째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단타-2루타-3루타-홈런을 순서대로 기록) 등 한국프로야구계에 한 획을 긋는 역사를 썼다.

하지만 올시즌 개막전부터 부상을 당해 한달 가량 이탈했고, 김도영의 부상 공백

을 매우지 못한 팀 타선도 위축됐다.

한 달간 회복기간을 가진 김도영은 지난 21일 재검진을 통해 햄스트링 근육 손상 부분 완치 판정을 받았다. 22일에는 기술훈련을, 이날 경기에선 실전점검을 통해 경기감각을 되살렸다. 24일에는 라이브배팅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도영의 1군 복귀는 25일 LG 트윈스와의 경기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도영의 복귀는 KIA에게는 천군만마가 될 전망이다. KIA가 리그 최고 공격력을 보여줬던 지난 시즌의 맹공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는 전략적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김도영이 2번 타자로 타선에 복귀할 경우 위즈덤과 나성범에게 타점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3번 타자로 복귀하게 된다면 나성범과 최형우가 각각 5번과 6번으로 받치며 실 틈 없는 맹공을 이어갈 수 있다.

특히 김도영은 지난 시즌에도 개막을 앞두고 부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적응에 성공했던 만큼 이번 시즌에도 적응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11월 아시아프로야구 챔피언십(APBC) 일본과 결승전에서 손가락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겪은 김도영은 3개월이 넘도록 연습경기 등에서 제외됐으나 두 번째 시범경기 만에 멀티히트를 기록했고 4월들어 타율 0.385로 맹활약하기도 했다.

글·사진·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내달 3일 KIA-한화전 오후 2시로 변경… “공정성 훼손”

오후 2시 경기 KIA 가장 많아

오는 5월3일 광주에서 열리는 KIA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의 프로야구 경기 시간이 지상파 생중계 편성을 이유로 오후 2시로 변경됐다.

23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따르면 5월 3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KIA와 한화의 경기 시작 시간이 오후 5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됐다.

KBS2 지상파 TV 중계 사정상 일정을 변경했다는 게 그 이유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정팀만 토요일 오후 2시 경기를 반복해서 치르고 있어 체력소모가 크고 평소 주중에 야간경기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오후 경기를 진행하게 되면 일상의 루틴도 깨지기 때문에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5월3일을 포함해 KIA는 개막 이후 토요일 경기를 2시로 편성한 게 5경기로 가장 많고, LG(4회), 한화(3회), 두산(3회), 삼성(2회) 순으로 NC는 토요일 오후 경기를 진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현기 기자

AI페퍼스, FA시장서 스타플레이어 고예림 영입

하혜진과는 재계약 체결
“팀 중심 잡아줄 것 기대”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아웃사이드 히터 고예림을 영입하고 미들블로커 하혜진과 재계약을 맺었다.

페퍼저축은행은 2024-2025 V리그 시즌 종료 후 열린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아웃사이드 히터 고예림을 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2013-2014시즌 한국도로공사를 통해 프로 무대에 데뷔해 그해 신인왕을 차지한 고예림(30)은 팀 내 주전선수로 자리매김을 하던 중 2017-2018시즌 개막을 앞두고 당시 한국도로공사가 영입한 FA 박정아(현 페퍼저축은행)의 보상 선수로 IBK기업은행으로 이적했다.

고예림은 12시즌 동안 활약한 풍부한 경험과 베테랑으로서 안정된 경기 운영 능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공·수 밸런스를



고예림



하혜진

고루 갖춘 자원으로 팀 전력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페퍼저축은행은 이날 내부 FA였던 미들블로커 하혜진 선수와도 재계약을 체결하며 FA 시장을 통한 전력 구성을 마무리했다.

장소연 페퍼저축은행 감독은 “고예림은 공수 균형을 갖춘 선수로, 화려한 득점보다 안정적인 리시브를 바탕으로 팀 수비에 중심을 잡아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트 내 유기적인 움직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다”고 밝혔다.

민현기 기자

본선 단식 1R서 정운성 2-1제압
권순우, 제이슨 쿠블러에 0-2 패

구레 출신 ‘국내 남자테니스강호’ 박의성(24·대구시청)이 2025 광주오픈 국제 남자챌린저 테니스대회 단식 16강에 진출했다.

박의성은 23일 광주광역시 진월국제테니스장(하드코트) 센터코트에서 열린 대회 본선 3일째 단식 1라운드(32강)에서 ‘육군 일병’ 정운성(27·상무)을 상대로 2-1(4-6, 6-3, 6-4)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박의성은 1세트 게임스코어 4-4로 팽팽히 맞서다 정운성의 폭발적인 서브와 스트로크에 밀려 두 게임을 내리 내주며 무너졌다. 그러나 2세트부터 힘을 내 고비마다 터지는 서브 에이스와 안정적 리턴샷을 바탕으로 정운성을 몰아붙여 값진 역전승을 일궈냈다.

박의성은 이번 승리로 2023년부터 정운성과의 상대전적에서 2승1패로 우위를 점했다.

박의성은 경기 뒤 공식 인터뷰에서 “(정)운성 형이 워낙 힘이 좋아 안 밀리려 노력했는데, 승리해 기쁘다”며 “운성 형과는 어릴 적부터 같이 운동해 잘 안다. 형의 스트로크가 워낙 좋아 힘들었다. 그러나 베이스라인 플레이를 안정적으로 펼쳐 이길 수 있었다. 첫 서브 정확성이 떨어져 불안했는데, 잘 극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성시청에서 선수생활을 하다가 지난 1월 군에 입대한 육군일병 정운성은 선전했지만 제 컨디션을 찾지 못한 듯 2세트 후반부터 에러를 남발하며 패배하고 말았



박의성이 23일 광주광역시 진월국제테니스장(하드코트) 센터코트에서 열린 2025 광주오픈 국제남자챌린저 테니스대회 본선 단식 1라운드에서 정운성을 상대로 경기하고 있다.

광주시테니스협회 제공

다.

박의성은 16강전에서 세계 110위 강호 인 브랜든 홀트(27·미국)와 맞붙는다. 홀트는 이번 대회 3번 시도다.

세계 507위 권순우(27·상무)는 같은날 열린 본선 단식 1라운드에서 세계 307위

제이슨 쿠블러(31·호주)에 0-2(3-6 4-6)으로 석패해 16강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주 부산오픈 챌린저 8강전에서 정현을 2-0(6-2 6-4)으로 눌렀던 쿠블러는 이날 강력한 서브와 안정적인 스트로크 플레이를 앞세워 낙승했다.

최동환 기자